

▶ 의생활 · 주생활

근대 이후 노인의 생활과 생활공간 변화에 대한 일상사적 고찰*

홍 형 옥(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전공 교수)
전 남 일(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과 조교수)
양 세 화(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환경학과 교수)
은 난 순(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원)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 이후 현대까지 노인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것이 주거 공간에 어떻게 상징적으로 투사되어 왔는지를 일상사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화 시기 노인의 생활과 주거공간에 나타난 가족 내 상징적 상호작용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근대사회의 생활세계 식민화로 인한 노인 생활과 생활영역에 있어서의 일상사적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산업화 사회 이후 노인이 겪는 생활상의 갈등과 사회체계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모습은 일상사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넷째, 제3의 연령기로의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활공간에 대한 현상학적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법으로, 시기별 시대상과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구술자료, 고문헌, 잡지 등 대중매체, 연구논문 등의 사료이며, 그에 나타난 노인에 관한 내용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분석의 내용은 미시사적 시각의 하나인 일상사·일상생활의 관점(이하 일상사적 관점)에 의해 서술한다. 각 시기별 노인의 일상사에 대한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개항 전후 노인을 포함한 가족원은 극심한 사회적, 이념적, 경제적 변화 속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 내 권력구조의 재편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가족 내 상징적 주도권자이자 대접받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현상학적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은 다음세대에게 가르침을 주고 집안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였다. 주거공간에서도 큰방을 점유하고, 독상을 받으며, 손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상의 현상을 통해 전통사회에서의 노인 위상이 그대로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징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큰방을 둘러싼 공간조정 행위는 노인과 다음 세대 간에 이어진 상호작용 행태가 공간으로 조절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생을 마칠 때까지 큰방을 점유하는 경우, 실질적 권한은 자식에게 있으나 상징적 권위자로서 노인의 가족 내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맑스주의적 일상생활의 관점을 통해 보면,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생산체계가 변화하고 신지식을 가진 젊은 세대의 주도권이 가시화 되면서, 노인의 역할은 위축되고 무의미한 일상을 보내는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인해, 신문물과 신지식에 어두운 노인들은 점점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다. 노인은 확대되는 공공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노동시장으로의 접근도 어려워지는 등 주거 밖 생활과의 단절은 더욱 심화되었다.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내외사상의 풍습이 일부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인부양을 둘러싼 가족 내 갈등 현상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찾는 노인의 일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의 연령기에 대한 관심은 산업화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노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이들은 새로운 주거에 대해 탐색하고 요구하는 세대로 이전과는 다른 일상을 설계하고 있다.

* 본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한국근현대 연구지원' (과제번호 2003-073-CS1001)으로 이루어졌음.